지상백고좌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동명 대종사

“한 목숨 다할 때까지 부처님 법 전하겠다”



동명 대종사는… 195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다. 1964년 부안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내소사에서 사미계를, 통도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75년 해인사 강원을 졸업했다. 이후 해인사, 송광사, 백양사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부안 내소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서울 개운사 주지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전등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후학들을 제접하고 있다.

서울 성북의 강소(强小)사찰 전등사가 아침부터 분주하다. 약 넉 달 만에 열리는 법회에 불자들은 법당과 공양간 등에서 분주하게 손을 보태고 마음을 모았다. 동안거 시작 이후 기도법사스님과 동지, 정초기도 등 예정했던 정진을 빠뜨리지 않았지만 불자들에게 이날은 더 특별하게 다가왔다. 바로 전등사 회주이자 조계종 원로의원 원산 동명 대종사를 친견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無門關)에서의 정진을 마치고 법상에 오른 동명 스님은 전과 다름없는 천진난만한 미소로 불자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췄다.

“사방이 막힌 독방에서 ‘폐문정진(閉門精進)’해야 하는 무문관의 창 너머로 보이는 설악산의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근원, 본래면목(本來面目)은 무엇일까를 참구했습니다. 저 물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까? 저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갈까? 사람의 마음은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갈까?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무엇이고 삶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다른 공간이었지만 서로 여법하게 수행하고 다시 만나게 돼 너무 반갑습니다.”

법회에 이어 계속된 기도에서도 스님은 불자들을 위한 축원을 쉬지 않았다. 50여 명의 불자들은 부처님 전에 머리를 숙였고 지극정성으로 마음을 살펴주는 동명 스님에게 다시 한번 두 손을 모았다.

무문관 수행, 마음 젊어진 시간

법회와 기도가 끝나고 전등사 공양간을 찾았다. 불자들과 ‘겸상’을 하는 동명 스님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종단의 원로의원이고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라면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공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공양간 한복판에서 대중들과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모습은 스님의 평소 모습과도 잘 어울렸다.

공양을 마치고 스님과 마주 앉았다. 손수 준비해주신 믹스 커피 한 잔이 어느 차보다 달콤했다. 맑고 밝은 표정은 그대로였지만 무문관에서의 고행을 말해주듯 확실히 스님은 야윈 모습이었다.

“무문관에 들어가기 전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무문관 수행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해안 큰스님도 그렇고 저도 만해 스님을 특별히 존경하기 때문에 이번 설악산에서의 기도와 정진은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인이나 문학가로 만해 스님을 알고 있지만 사실 스님은 선지(禪旨)가 대단했습니다. 확실한 선사(禪師)였어요. 그리고 해방을 향한 스님의 의지도 확고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할 때도 스님은 끝까지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수행자의 기백이 살아 있던 어른이었습니다.”

약 한 달간의 담금질 뒤 스님은 무문관에 입방했다. 스님 포함 총 11명의 납자(衲子)들이 방부를 들였다.

설악산 백담사 무문관서 정진 마쳐
안거기간 ‘본래면목 무엇인가’ 참구
하루 한끼 먹으며 정진, 6kg 빠져
“불보살 가피로 여법하게 정진 회향”

은사 해안 스님 가르침 항상 새겨
스승 법문, 녹음기 짊어지고 녹취
해안 스님이 보인 전법 원력 계승

“무문관에서의 24시간은 온전한 나만의 시간입니다. 잘 활용하면 48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24시간이 1시간, 2시간도 안 되게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은 “매우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무문관에 살아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심자보다는 공부가 좀 된 사람이 와야 한다는 생각을 우선했습니다. 자기 공부가 무르익어가는 수행자가 온전하게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만 안 된 사람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원력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곳이 바로 무문관입니다.”

스님은 매일 오전 10시 30분 식구통(食口桶)을 통해 공양을 받았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공양을 두 번에 나눠 먹었지만 사실상 금식에 가까운 식사량으로 육체적 고통은 피할 수 없었다. 치통이 머리끝까지 올라왔다. 소금으로 하루 여섯 번의 양치를 하면서 고통을 이겨냈다. 살이 빠지는 것도 느껴졌다. 해제하고 저울에 올라보니 6kg이나 빠져 있었다.

“거울을 보면서 이제 저도 할아버지가 다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 70대 중반의 나이이니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죠. 그래도 마음은 더 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들어갈 때는 11명이었는데 해제할 때 보니 3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병이 와 도중에 퇴방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불보살님의 가피로 겨울 정진을 원만하게 회향한 것 같습니다.”

무문관 수행에 대한 말씀 도중 여러 차례 등장한 선지식이 있다. 바로 해안 스님이다. 스님은 “무문관에서도 해안 큰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또 새겼다”고 했다. 동명 스님은 경봉 스님을 모시던 명정 스님, 구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현호 스님, 성철 스님을 시봉했던 원택 스님과 함께 ‘현대불교 4대 효상좌’로 꼽힐 정도로 스승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다.

그 스승의 그 제자

근현대불교에서 ‘동(東) 경봉, 서(西) 해안’으로 불릴 정도로 많은 대중의 존경을 받았던 수행자 해안 스님. 해안 스님의 제자가 바로 동명 스님이다.

전등사는 해안 스님이 1972년 서울 수유리에 ‘전등선림’을 연 것이 그 시초가 됐고 1977년 해안 스님의 맏상좌 혜산 스님이 현 전등사 위치로 이전 개원했다. 동명 스님이 1996년 지금의 전등사 건립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그 가풍이 이어져 오고 있다. 동명 스님이 스승과의 인연을 풀기 시작했다.

“어렸을 때 집이 무척 어려웠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마을 위에 있던 암자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 계신 스님에게 ‘제 자식을 좀 맡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절에 있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온갖 일을 해야 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절 생활이 괜찮았습니다. 2년여를 그렇게 보내던 어느 날 어떤 노보살님이 저를 보시고는 ‘여기 있으면 일만 하니 좋은 스승을 찾아가라’며 저를 해안 큰스님께 소개해 주셨어요. 전주에서 큰스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하루 늦게 도착해 뵙지를 못했습니다. 예산 보덕사로 가셨다는 말에 다시 발걸음을 돌려 큰스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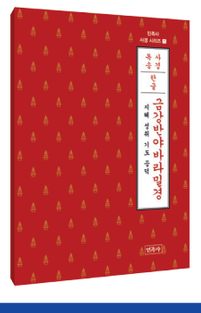
13면에 계속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